

오름 위 별과 바람, 그 뜨거운 생명의 현장

한라일보 1층 갤러리 이디 개관 후 두 번째 초대전시 제주 백광의 작가 작품전 '오름 위에 부는 바람' 주제 8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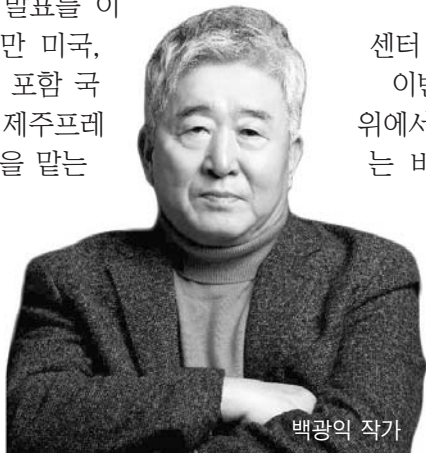


백광의 '오름 위에 부는 바람' (캔버스에 혼합재료, 2020).

오름 위에 별과 바람이 스친다. 우리에게 친숙한 시는 별 하나에 추억, 별 하나에 사랑이 있다고 했지만 그의 화면 속 오름 위 생명체들은 낭만의 표상을 뛰어넘는다. 땅과 잇닿는 바다에 휘날리는 파도마냥 하늘에 점점이 박힌 별들은 폭발적인 에너지를 품은 채 소용돌이치고 있다. 제주 토박이 백광의 작가가 빛내내는 풍경들이다.

한라일보 갤러리 이디(ED)가 개관 이후 두 번째 초대전으로 백광의 작가의 작품을 선보인다. 8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오름 위에 부는 바람'이란 주제 아래 백 작가의 신작을 위주로 제주도민들에게 공개한다.

백광의 작가는 교직에 몸담으면서도 꾸준히 작품 발표를 이어왔다. 개인전 횡수만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포함 국내의 35회에 이른다. 제주프레비엔날레 운영위원장을 맡는 등 90년대 중반 제주에서 국제 미술전의 짝을 띄웠던 그는 퇴임 뒤 한층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 사단법인 제주국제예술



백광의 작가

센터 이사장으로 있다. 이번 전시엔 '오름 위에서', '오름 위에 부는 바람' 연작이 나온다. 제주섬의 자연과 문화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조형언어를 열정적으로 탐색해온 작가의

여정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백 작가는 캔버스 표면 전체를 격자무늬로 새겨놓고 사각면의 군데군데 색점을 찍어내거나 작은 삼각형으로 칼집을 내어 밀어넣는 방식으로 오름을 표현해왔다. 오름 위에 펼쳐지는 자연현상을 그릴 때도 있다. 후반으로 오면 이 세 가지 방식이 하나의 작품 위에 혼합응용되며 작가의 고유한 화법으로 정착(평론가 김

영호 중앙대 교수)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가 형상화하는 오름은 어떤 구체적 물상이기보다 상징성을 띠고 있다. 이 점에서 사람 사는 마을과 이웃해 있고 하늘과 가까운 곳에 자리한 오름은 인간이 그 너머 우주를 느끼고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이다. 동그렇게 솟아오른 오름에 올라 바라본 산하는 새삼 미물인 우리의 존재를 일깨운다. 오름 위 부는 바람, 반짝이는 별, 하늘로 팔을 벌린 나무 아래 서 있는 사람의 형상은 작디작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확인해지고 있듯, 대자연은 말없는 가르침을 준다. 인간의 발길이 머무는 영역보다 넓디넓은 그것은 찰나일지 모르는 고통과 슬픔을 품어주고 미지의 세계를 꿈꾸게 한다.

제주 김원민 평론가는 일찍이 그의 작품에서 운동주의 시 '별 헤는 밤'을 떠올리며 '우주적 원근의 비전'을 엿다. 김원민 평론가는 "오름을 향하여 통일성 있는 움직임이 보여주는 밤하늘은 오름과 우주공간이 만들어내는 아름답고 장대한 하나의 시"라며 "그림이 작가가 지닌 의미와 감정, 또는 독자적인 사물 그 자체로서 제자리로 돌려주는 기능을 한다고 할 때, 분명 백광의 오름은 뜨거운 생명의 본질로 돌려보내는 의식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고 했다.

개막 행사는 첫날 오후 3시에 열린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맞춰 거리두기를 지키며 소규모로 치러진다. 문의 064)750-2530.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오미선 이정원 박준혁 김은경

오페라 '투란도트'에 흐르던 그 음악

내달 8일 서귀포예당 온라인 갈라 콘서트로

'공주는 잠 못 이루고' 등 오페라 '투란도트'에 흐르는 음악이 서귀포예당에 울려진다. 서귀포예술의전당은 8월 8일 오후 3시 오페라 '투란도트' 갈라 콘서트'를 펼친다.

이탈리아 작곡가 푸치니(1858~1924)의 '투란도트'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오페라로 꼽힌다. '투란도트'는 푸치니가 "지금까지 내 오페라들은 다 버려도 좋다"라고 했을 만큼 자신감을 보였던 미완의 역작이다.

당초 서귀포예술의전당은 대표 브랜드로 키워가고 있는 제5회 오페라 페스티벌을 통해 이 작품을 별도 공연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무산됐다. 대신에 하이라이트 장면을 보여주는 무관중 온라인 갈라 콘서트로 행사를 바꿔 청중들과 만난다. 투란도트 역에는 수십여 편의 오

페라에 출연해는 소프라노 오미선, 칼라프 왕자 역은 '한국의 칼라프'로 불리며 '투란도트' 무대에 100회 이상 오른 테너 이정원이 나선다. 이와함께 티무르 역에 베이스 박준혁, 류 역은 소프라노 김은경, 팡·팡·팡 역은 왕광열·전병호·김성진이 각각 참여한다.

이번 공연의 지휘는 이탈리아 프로시노네 국립음악원에서 작곡·오케스트라지휘·합창지휘 등 3개 부문 졸업장을 받은 박지운씨가 맡아 제주프라임필하모닉과 호흡을 맞춘다. 예술총감독인 김수정씨가 해설을 곁들여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공연 실황은 서귀포시 유튜브채널(채널서귀포)과 페이스북(서귀포시청)으로 중계된다. 서귀포예술의전당은 "오페라 공연을 축소하고 비대면 온라인 공연으로 진행하게 돼 아쉬움이 크다"며 "온라인 실황 공연 생중계로나마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760-3341. 진선희기자

문화가 쏘다

서협 초대작가 3명 선정

문화공간 비수기 프로그램

20대 청년작가들 체험형 오픈스튜디오

예술단체 비플 기획으로 8월 7-8일·11-12일 나흘간 관객 소통·즐거거리 강화 지속가능 청년예술 모색

제주의 20대 청년작가들이 '예술 전시 체험 오픈스튜디오'를 운영한다. 예술단체 비플(Beeple)이 8월 7-8일, 8월 11-12일 4일 동안 제주시 연북로 74 세화빌딩 6층에 마련한 일

시 작업실에서 펼쳐는 '노크(Knock)'다. 이번 행사는 지역의 청년작가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길을 내기 위해 기획했다. 예술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작품 제작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결국 창작 시간이 나 예술 활동 경험 부족으로 졸업 후에는 작업을 포기하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픈스튜디오 '노크'는 청년작가들의 예술 활동 경험을 만들고 관객들과 소통

하며 청년예술 기반을 다지려는 목적이 있다. 비플은 오픈스튜디오 가동에 앞서 제주대와 제주한라대 재학생, 졸업생 등 회화·입체 분야 청년작가 8명을 모집했다. 이들은 오픈스튜디오 기간에 각자의 방을 연출해 작업실이나 예술 활동 경험 부족으로 졸업 후에는 작업을 포기하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픈스튜디오 '노크'는 청년작가들의 예술 활동 경험을 만들고 관객들과 소통

된다. 스튜디오 개방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정해졌다.

이 행사를 기획한 문기범(제주대 문화조형디자인학과 4학년)씨는 "제주는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적고, 오픈스튜디오는 소통보다는 보여주기만 하는 관람 예술의 형태로 변질된 것 같다"며 "따라서 이번 오픈스튜디오는 소통을 할 수 있는 장치와 체험 거리를 넣어 제주도민들이 예술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밝혔다. 참가 문의는 SNS(인스타그램 beeples_official)나 전화(010-5621-7872)를 이용하면 된다. 진선희기자

"최고의 맛과 서비스로 고객님의 모시겠습니다."

만배성 한정식

양만배 **조리기능장(Master Chef)**이 어머님의 손맛처럼 만배(萬倍)로 정성(精誠)을 다하여 마련한 만배성한정식 (萬倍誠韓定食)이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습니다.

예약문의 Tel. 712-6800
 제주시 아연로 484-9(아라1동)

1층 만배성 밥집(10:00 ~ 15:00)
 코로나로 인해 심신이 피로하고 지친분들을 위해 만배성 밥집만의 기력회복에 좋은 신선하고 건강한 메뉴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1층 돌잔치 예약 받습니다)

식사료		일품요리	
가마솥영양밥+불고기	12,000원	도가니탕	12,000원
가마솥회비빔밥+불고기	12,000원	소머리곰탕	8,000원
가마솥아채비빔밥+불고기	9,000원	차돌냉장찌개	8,000원
궁중해장국효종갱	12,000원	소불고기	10,000원
왕갈비곰탕	12,000원	도미머리미역국	10,000원
인삼꼬리곰탕	15,000원		

2층 만배성한정식 코스요리(11:00 ~ 22:00)
 상견례, 칠순, 팔순, VIP접대, 각종 연회 및 모임 등을 행사 취향에 맞는 메뉴를 마련하였습니다.

특A : 1인 70,000
A : 1인 50,000
B : 1인 40,000
C : 1인 30,000

점심특선 한정식 1인 20,000

※ 모든 요리에는 갖지은 즉석가마솥밥이 제공됩니다.